



2018년 웰링턴 · NSW주의회 방문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



2018.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웰링턴 · NSW주의회 방문 개요

여행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웰링턴시의회와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 예방 등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방문도시의 우수정책 설명청취 및 의정활동 모범 사례 수집 					
여행기간	2018. 1. 16(화) ~ 1. 23(화), 6박 8일					
여행국	뉴질랜드, 호주					
방문기관	웰링턴시, 웨타스튜디오, 창의력연구소,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주시드니총영사관,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계				47,400,500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장	양준욱	남	7,160,020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남	4,449,140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훈	남	4,249,140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유용	남	3,946,340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이윤희	여	3,946,340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김광수	남	3,946,340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최웅식	남	3,946,34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기대	남	3,845,900	
	교통위원회	위원	신원철	남	3,845,900	
	교통위원회	위원	장우윤	여	3,845,900	
교통위원회	위원	김태수	남	4,249,14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환율 : 1\$=1,080.00원(2017.12.22.,KEB하나은행 고시 환율 현찰 살 때) - 여비구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국외여비 					

웰링턴·NSW주의회 방문 결과보고

대양주 지역 시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을 방문하여 의회 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자매도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의회를 방문하여 우호관계를 강화함

1 방문 개요

- 방문일정 : '18. 1. 16(화) ~ 1. 23(화), 6박 8일
- 방 문 지 : 뉴질랜드 웰링턴, 호주 시드니
- 방문목적 : 뉴질랜드 웰링턴시의회와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회 예방 등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방 문 단 : 총 16명

○ 의 원(11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한글	영 문		
1	서울시의회	의 장	양준욱	YANG JUN YOOK	남	
2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원 장	박준희	PARK JUN HEE	남	
3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원	최웅식	CHOI WUNG SHIK	남	
4	교 통 위 원 회	위 원	신원철	SHIN WEON CHUL	남	
5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원	김광수	KIM KWANG SOU	남	(도봉)
6	교 통 위 원 회	위 원	김태수	KIM TAE SOO	남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 원	김기대	KIM KI DAE	남	
8	교 통 위 원 회	부위원장	김상훈	KIM SANG HUN	남	
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유 용	YU YONG	남	
10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위 원	이윤희	LEE YUN HEE	여	
11	교 통 위 원 회	위 원	장우윤	CHANG WOO YOON	여	

○ 수행공무원(5명)

12	의 정 담 당 관	행정5급	현진숙	HYUN JIN SOOK	여	
13	의 정 담 당 관	임기6급	김하나	KIM HA NA	여	
14	의 정 담 당 관	행정7급	나병섭	NA BYUNG SUB	남	
15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행정7급	원진희	WON JIN HEE	남	
16	언 론 홍 보 실	임기8급	김강현	KIM KANG HYUN	남	

2 주 요 일 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비고
1/16(화)	인천 (17:05)	~	• 인천공항 출발	KE129 (11시간 10분)
1/17(수)	~	오클랜드 (08:15)	• 오클랜드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환승	NZ421 (1시간 5분)
	오클랜드 (12:00)	웰링턴 (13:05)	• 웰링턴공항 도착 • 웰링턴 시내 탐방	
1/18(목)	웰링턴	-	• 웨타 스튜디오(영화제작) • 웰링턴시의회 MOU 체결식 • 뉴질랜드 창의력 연구소 • 테파과 국립 박물관	오찬
1/19(금)	웰링턴 (16:05)	시드니 (17:45)	• 뉴질랜드 대사관저 오찬 • 웰링턴 공항출발, 시드니공항 도착	QF164 (3시간 40분)
1/20(토)	시드니	2시간이동	• 레일웨이 및 케이블웨이 현장시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1/21(일)	시드니		• 공연장 시설물 견학 • 시드니 시내 탐방	오페라하우스 내부 시찰
1/22(월)	시드니	-	•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예방 • 시드니 총영사 면담 •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 방문	오찬
1/23(화)	시드니 (09:00)	인천 (17:40)	• 시드니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KE122 (10시간 40분)

3 업무 수행내용

웨타 스튜디오(영화 후반부 제작 스튜디오) 방문

- 일 시 : 2018. 1. 18(목) 09:00
- 장 소 : 웨타 스튜디오
- 면담대상 : 데이비드 윌크스 웨타 워크샵 총괄 매니저
- 내 용 : 영화 특수효과 및 작업현장 설명 청취

웰링턴 시의회 방문 및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일 시 : 2018. 1. 18(목) 12:00
- 장 소 : 웰링턴클럽
- 면담대상 : 저스틴 레스터 시장
- 내 용 : 양 도시 의회 간 향후 교류방안 논의 및 협약 체결 제안

▶ MOU 체결 개요

- 체결주체 :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웰링턴시 저스틴 레스터 시장
- 체결방법 : 한국어·영어본 2부 작성 후 각 기관 날인 및 교환
- 주요내용 : 양 도시 의회 간 향후 교류방안 논의 및 협약 체결 제안

뉴질랜드 창의학교(Creativity Institute) 방문

- 일 시 : 2018. 1. 18(목) 14:30
- 장 소 : Te Auaha
- 면담대상 : 모이라 헤겐슨 총괄 매니저
- 내 용 : 창조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독창성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 관저 오찬

- 일 시 : 2018. 1. 19(금) 11:30
- 장 소 : 뉴질랜드 대사관
- 면담대상 : 여승배 대사
- 내 용 : 웰링턴시, 뉴질랜드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호주 NSW 주의회 방문 및 환영오찬

- 일 시 : 2018. 1. 22(월) 10:30
- 장 소 : 호주 NSW 주의회
- 면담대상 : 상원 부의장, 하원 부의장
- 내 용 : NSW 주의회 제도운영, 의정활동 청취 및 NSW 주의회와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 일 시 : 2018. 1. 22(월) 14:30
- 장 소 : 시드니 총영사관
- 면담대상 : 윤상수 총영사, 호주사무소장
- 내 용 : 시드니시, 호주 최근 정세 및 한국과의 주요 이슈 파악

뉴사우스웨일즈 관광청 방문

- 일 시 : 2018. 1. 22(월) 15:30
- 장 소 :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
- 면담대상 : 산드라 칩체이스 관광청장
- 내 용 : 호주 및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 정책 청취 등

4 출 장 결 과

□ 웨타 스튜디오 방문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반지의 제왕, 아바타, 어벤저스, 매드맥스, 나니아연대기 등 영화의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웨타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총괄 매니저인 데이비드 윌크스를 면담하고 스튜디오를 둘러봄
- 데이비드 윌크스 총괄 매니저는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미 광명시 등 한국의 도시들과 교류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함
- 웨타 스튜디오의 CEO인 리처드 테일러 경은 한국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광명 컨셉디자인 대회를 창설해 매년 대회를 통해 수상한 한국의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이 웨타 워크샵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웰링턴시 시장 면담 및 MOU 체결

- 웰링턴시 저스틴 레스터 시장과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여승배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별도 면담을 가지고 양 도시 간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함
- 면담 이후 한인회, 영화업계 등 한-뉴 관계 강화를 지원해 온 참석자들 앞에서 “서울시의회와 웰링턴시의회 간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행사가 개최됨
- 양해각서는 양측이 상호이익이 되는 교육, 과학 및 기술, 교역, 창조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 시의회 간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의 문화적 역사적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김

※ 면담 요지

〈저스틴 레스터 시장 말씀〉

- 2017년 방한이 2002년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그 간에 한국이 크게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교통, 기술, 환경 등에서 발전을 느꼈음
- 웨타 스튜디오는 뉴질랜드가 세계영화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모델로 금일 시찰 내용이 한국에 잘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램
- 금년 9월 웰링턴시 부시장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초청으로 방한 예정임

〈양준욱 의장 말씀〉

- 아바타, 반지의 제왕, 킹콩 등 유명 영화의 후반부 제작을 담당하는 웨타 스튜디오 방문 시 미국 할리우드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관광산업 가능성을 확인함
- 영화, 음악 등 분야에서 창의성을 토대로 아시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장점을 바탕으로 금일 체결되는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램

※ MOU 체결식 축하 요지

〈저스틴 레스터 시장 말씀〉

- 웰링턴과 서울시는 창의산업, 영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도시의 현재 관계를 보다 발전시킴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램
- 이에 금일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현재 웰링턴-서울시 간 친선도시 관계가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될 수 있기를 바램

〈양준욱 의장 말씀〉

- 금일 체결되는 “서울시의회와 웰링턴시의회 간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동 양해각서를 계기로 영화산업의 중심인 웰링턴, 관광·문화·게임 산업의 선두인 서울이 도시의 장점을 토대로 교류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램

〈여승배 대사 말씀〉

- 서울시의회 대표단의 방문과 양해각서 체결이 양 도시의 친선도시 관계가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이러한 관계개선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램



□ 뉴질랜드 창의학교(Te Auaha) 방문

- 서울시의회-웰링턴시의회 간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에 포함된 분야 중 창의 산업과 관련하여 창의학교를 방문함
- 웰링턴시가 영화, 음악, 공연 등 창의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창의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설물을 견학 하고 모리아 헤겐슨 총괄 매니저로부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청취함

※ 창의학교 소개 내용

- 창의학교(테아우하)는 뉴질랜드의 대표적 폴리테크닉 교육기관인 위티레이아(Whitireia)와 웰링턴기술전문대학(Well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이 통합된 조인트 벤처로 영화제작, 공연예술, 음악, 메이크업, 시각 및 디지털 디자인, 창작 글쓰기, 저널리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함
- 뉴질랜드 최초로 시도되는 교육형식으로 2018년 3월 5일 개관을 앞두고 있음
- 지진 취약지대이기 때문에 기준에 비해 130% 더 강화하여 내진설계함
- 학교 직원은 85명이지만 책상은 55개로, 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개인 사무실과 개인 책상이 따로 없고 출근하여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봄
-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동 학교가 뉴질랜드의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함



□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 관저 오찬

- 여승배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개최하여 한-뉴 지자체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함

※ 면담 내용

〈여승배 대사 말씀〉

- 레스터 시장의 작년 방한과 금번 서울시 의회 대표단 방문 및 양해각서 체결은 양 도시 간 친선도시 관계를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금년 7월 대사관과 웰링턴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K-Culture Festival에 서울시 공연단의 참가 및 양 도시 간 영화분야 협력을 위한 영화인 교류 등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준욱 의장 말씀〉

- 양 도시 교류 강화를 위한 대사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귀국 후 서울시를 통해 상기 요청을 검토하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회 방문

- 자매도시 관계인 NSW주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 NSW주의회 상원 부의장 및 하원 부의장 주최 오찬 자리에 참석해 양 도시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 강화 및 이해 증진의 기회를 가짐

※ NSW주의회 소개

- NSW주의회는 상하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은 93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 상원은 42명으로 비례대표제도로 선출
- 상원에는 군소정당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녹색당이 5석, 기독교민주당이 2석, 사냥낙시당이 2석, 동물보호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음
- 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며 그 정당의 당수가 주총리(premiere)가 됨
- 상원 임기는 8년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씩 4년마다 선거로 선출함
- 상원의원 보좌관은 1명으로 의사당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하원의원의 보좌관은 3명으로 의사당과 지역구에 사무실을 둠
- 8-12년 마다 선거구 조정
- 의원은 봉급(연 15만 호주 달러)과 수당을 받으며, 일부 비용은 보전받음
-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같으나, 상원은 위원회 기능이 강하고 하원은 예산안 기능이 강함

※ 오찬 말씀

- 에너지 사용 관련, NSW주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화력발전소가 30년 전에 지어졌으며, 원자력 발전소는 없음
- 한국은 대기질 문제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NSW주에는 전기차가 거의 없음
- 오후에 방문하게 되는 뉴사우스웨일즈 관광청과 관련, 관광객들이 주 내에서 시드니, 울릉공 등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 시드니 근교로의 관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 윤상수 주시드니 총영사를 면담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지 교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짐

※ 면담 내용

〈양준욱 의장 말씀〉

- 아직도 캔버라가 아닌 시드니를 호주의 수도로 알고 있는 한국인이 많은 것은 도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함
- 시드니는 호주의 경제도시이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시드니 총영사관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생각함
-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생각하는 국가 중 하나가 호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취업과 관련한 사항이 궁금함

〈윤상수 총영사 말씀〉

- 서울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가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반갑게 생각함
- 많은 청년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나 취업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취업에 유리한 직종은 기술직임
- 이에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한국 청년들이 단순한 취업의 기회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 방문

- 산드라 칩체이스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Destination NSW)과 스테판 마호니 지역총괄 매니저를 면담하여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관광 진흥 정책을 청취함

※ 면담 내용

〈산드라 칩체이스 청장 말씀〉

- 뉴사우스웨일즈(NSW)주는 2020년까지 방문객의 주내에서의 소비(visitor economy)를 8.7% 증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0개 항공사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시드니 지역은 겨울 비성수기에 호텔 객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라는 축제를 기획했고 큰 성공을 거둠
- 시드니에 관광객이 편중되어 그 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향상 노력을 하고 있고 공항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철로나 도로를 개선함

〈Q&A 내용〉

- 방문객 소비 증가에 기여할만한 시드니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아름다운 항구, 훌륭한 음식과 와인을 들었으며, 아웃백에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 음악·스포츠 등을 아우르는 지역축제라고 답변함
-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는 중국, 뉴질랜드, 영국으로 한국은 아홉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국가임
- 산드라 칩체이스 청장은 또한 서울 방문시 공항, 버스, 택시가 교통 허브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며, 다른 국가에서 서울의 도시계획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 붙임 : 1. 출장 중 만난 사람(인적 네트워크) 1부
 2. 수령기념품 및 자료 1부
 3. 방문국가 및 도시정보 1부. 끝.

첨부 출장 중 만난 사람(인적 네트워크)

연번	소속기관	직 함	이 름
1	웰링턴시 웰링턴시의회	시장 의장	Justin Lester 저스틴 레스터
2	웰링턴시의회	의원	Simon Swampy Marsh 사이먼 스웬피 마시
3	웰링턴시	국제협력 팀장	Tom Yuan 툼 유안
4	웰링턴시	국제협력 정책담당자	Amanda Cundy 아만다 쿤디
5	한국시네라마 재단	이사장	Michael Stehens 마이클 스티븐스
6	뉴질랜드 영화위원회	국제협력담당	Chris Payne 크리스 페인
7	웰링턴 한인회	회장	김순숙
8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대사	여승배
9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참사관	김흥곤
10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서기관	채승희
11	웨타 스튜디오	총괄 매니저	David Wilks 데이비드 윌크스
12	창의학교	총괄 매니저	Moira Hagenson 모이라 헤겐슨

13	NSW주의회	상원부의장	Trevor John Khan 트레버 존 칸
14	NSW주의회	하원부의장	Thomas George 토마스 조지
15	NSW주의회	의전담당관	Susan Want 수잔 원트
16	주시드니 총영사관	총영사	윤상수
17	주시드니 총영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호주사무소	소장	김노경
18	주시드니 총영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호주사무소	부영사	진인영
19	Destination NSW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	청장	Sandra Chipchase 산드라 칩체이스
20	Destination NSW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	지역 총괄 매니저	Stephen Mahoney 스티븐 마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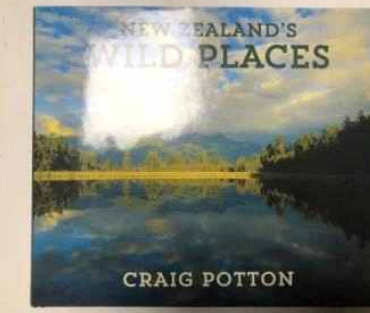
첨부 수령 기념품 및 자료



웨타스튜디오(자료)



웰링턴시의회(기념품)



웰링턴시의회(자료)



NSW주의회(기념품)



NSW주 관광청(기념품)

첨부 방문 국가 및 도시 정보

1 뉴질랜드 개황

□ 일반현황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인 구 : 479만명(2017년), 북섬에 약 76% 거주
- 면 적 : 27만 534km² (남한의 2.7배)
- 수 도 : 웰링턴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 민족구성 : 유럽인(70%), 마오리(14%) 등
- 종 교 : 기독교(51%) 등
- 행정조직 : 16개 Region, 13개 City, 53개 District, 1개 특별 Territory로 각각 지방의회가 존재

□ 정 치 : 의원내각제(3년마다 총선 실시),

- 국가원수 :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영연방, 입헌군주제)
 - 총독 : 팻시 레디(영국여왕에 의해 임명, 5년 임기, 상징적 정치 권력 보유)
 - 수상 : 빌 잉글리쉬(국민당 당수, 2016년 12월 취임)
- 선거제도 : 개별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혼합비례대표제, 3년마다 총선

□ 경 제(2016)

- GDP : 1,820억불 (1인당 GDP : 4만 3,698불)
- 교 역 : 681.64억불 (수출 : 337.56억불, 수입 : 344.07억불)
- 주요 산업 : 임대업 부동산(13.06%), 도소매 숙박(12.14%) 등
- 경제성장률 : 3.1%

□ 한국과의 관계

-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 참전, 45명 전사
- 북한과 2001년 3월 26일 수교하였으나 대사관은 설치하지 않음
- 체결협정
 - 2015. 3 자유무역협정
 - 2011. 6 관세상호인정협정
 - 2008. 9 영화공동제작협정 등
- 무역규모(2016)
 - 한국 수출 : 13.05억불(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중장비 등)
 - 한국 수입 : 10.98억불(원목, 낙농, 육류 등)
- 교 민(2013) : 한국 출생 이민자 수 2만5천명(전체 인구 0.7%)
- 방 문
 - 2016년, 2013년 2012년 2010년 존케이 총리 방한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 역 사

- 10세기 뉴질랜드의 발견
 -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유럽인으로는 1642년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최초로 발견했다. 1769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탐험하며 많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2 웰링턴 개황

□ 개 관 : 뉴질랜드 수도

- 뉴질랜드의 수도(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이자 2번째로 큰 도시
- 웰링턴 거주 시민 평균 소득: 연간 NZ\$37,900

□ 위 치 : 뉴질랜드 북섬 최남단

□ 면 적 : 444km²

□ 인 구 : 212,700명(2017)

□ 국제교류

- 자매도시 : 중국 베이징, 샤먼, 일본 사카이, 호주 시드니
- 우호도시 : 중국 톈진, 한국 서울(2016.7)

□ 행정조직

- 시장(시의회 의장직 겸임) : Justin Lester ※ 임기4년('16 ~)
- 부시장 : Paul Eagle
- 시의원 : 시장 + 의원14명
- 사무총장(CEO) : Mr Kevin Lavery
※ CEO / 전문행정경영인 - 인사권, 예산권, 행정결정권 보유

□ 서울시-웰링턴시 간 교류

- '07 ~ 웰링턴 버스의 70%를 운영하는 'NZ버스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Snapper시스템)
- '16. 07. 18 웰링턴 시장 서울시 방문, 서울-웰링턴 우호도시협약 체결
- '17. 09. 02 웰링턴 K-Culture 페스티벌 서울시 관광홍보물 지원



3 호주 개황

□ 위 치 :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

□ 위 치 : 오세아니아,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 위치

□ 면 적 : 768만km²(한반도의 약 35배)

□ 인 구 : 24,128,876명(2016)

□ 민 족 : 유럽계(85%), 아시아계(9%) 등

□ 경 제 : US \$1조 2,600억원(2016 GDP)

- 산업구조 : 1차산업(농업, 광업) 및 3차산업(금융, 서비스) 비중이 큰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 제조업 취약(GDP약 8.6%)

□ 행정구역 :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자치지구)

□ 정 치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국가원수 : 영국여왕),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의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
 - 총 리 : Malcolm Turnbull(집권당 당수, 호주 실질적 지도자)
- 의 회 : 상·하원 양원제(상원 : 총76명, 하원 : 총150명)

□ 한국과의 관계

- 호주와 한국 관계는 1889년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선교활동을 전개하며 시작
 - 수교 : 1961. 10. 31 (6.25 전쟁 UN참전국)
 - 북한-호주는 1974년 수교, 1975년 공관 철수 후 2000.5 양국 관계 재개

- 체결협정
 - 2014. 12 한-호주 FTA 발효
 - 2013. 5 한-호주 역외탈세정보 공유 협정 체결 등
- 교역규모(2016)
 - 한국 수출 : US75억1백만불(경유, 승용차 등)
 - 한국 수입 : US151억7천6백만불(유연탄, 천연가스, 육류 등)
- 교 민(2016) : 18만명
- 방 문
 - 2011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방한
 - 2009 이명박 대통령 호주 공식 방문

□ 역 사

- 18세기 말 유럽인들의 이주 이전에 최소 40,000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606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이후 1770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았으며, 1788년부터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식민지로 죄인들을 수송해 정착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민이 시작되었다. 대륙은 계속 탐험되어 다섯 개의 자치 식민지가 추가적으로 건설되었고 1901년 여섯개의 식민지가 연합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설립하였다.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적용을 받아 행정적으로 모국과 분리되었으며, 1948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는 대영 제국 신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사용하게 되었다.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 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영국과의 법적 종속관계를 단절하고 자주국가가 되었다.

4 뉴사우스웨일즈주 개황

□ 일반현황

- 위 치 :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위치, 동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빅토리아주, 서쪽으로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북쪽으로는 퀸즐랜드 주와 맞닿음
- 인 구 : 750만명(2014년)
- 면 적 : 809.444만 km^2 (서울시 605.25 km^2)
- 행정구역 : 16개 구(區), 주도 : 시드니
- 자매도시 : 광둥(중국), 도쿄(일본), 노르트라 인 베스트 팔렌(독일), 서울(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캘리포니아(미국)
- 주 총 리 : Gladys Berejiklian(2017.1 선출)

□ 서울시와의 교류 협력 관계

- 1991. 11. 자매결연 체결
- 2008. 10. 서울시장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차 서울시 방문
- 2012. 06. 뉴사우스웨일 주 부총리 서울시청 방문
- 2014. 06. 뉴사우스웨일 주 부총리 서울시청 방문
- 2016. 05. 서울시의회 대표단(박래학 의장)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 방문

5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개요

구 분	상원(Upper House)	하원(Lower House)
공식명칭	Legislative Council	Legislative Assembly
기 능	주민대표, 입법, 행정부 조사	주민대표, 집행부 구성, 입법, 예산승인
주민직선 시행연도	1856년	1978년
의원정수	42명	93명
의 장	 <p>John Ajaka (자유당) President</p>	 <p>Shelley Hancock (자유당) Speaker</p>
정 당 별 의석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당 13 · 국민당 7 · 노동당 12 · 녹색당 5 · 사냥어업당 2 · 기독교민주당 2 · 동물 정의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당 36 · 국민당 16 · 노동당 34 · 녹색당 3 무소속 8 · 사냥어업당 1
선거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거구제(주 전체가 단일 선거구) · 우선순위 투표제(Preferential) · 비례대표제 <p>-1차: 유효투표자의 4.55% 이상 1순위 득표자 -2차: 1차 당선자 추가표는 2선 후보에게 이양 → 4.55% 충족 시 당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선거구제 · 우선순위 투표제(Preferential) · 과반수 득표제 <p>- 후보자 모두에 대한 선호 순서 부여 - 1순위에서 과반 득표 시 당선 - 과반 미득표시 최하위 득표자 탈락 후 이 획득표를 나머지 투표자의 2순위 후보자에게 배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p>
임 기	8년(4년마다 절반씩 선출)	4년
최근선거	2015년 3월 26일	2015년 3월 29일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10) · 일반상임위(1~5), 법사, 의회특권, 의회절차, 사회문제, 도시개발 - 특별위원회(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10) · 지역서비스, 경제개발, 환경 및 규제, 법률 및 안전, 법무, 의회 특권 및 윤리, 공공회계, 사회정책, 질서절차, 지역개발, 교통인프라 - 특별위원회(1) 자동차정비산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은 주 정부의 통상적인 연간 공공서비스 안전을 막지 못함. - 하원 발의안을 부결시켜도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는 하원의 지지를 받는 정당 집단임. - 세금부과나 재정지출 의안은 하원에서만 제안됨.